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우크라이나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우크라이나의 경제안보

1. 서론

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정치적관점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77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전쟁이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위협했다. 유럽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야기 등 경제 차원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군비경쟁 가속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간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사적인 힘으로 영토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주권, 영토보존, 독립을 존중하는 UN 핵심 가치와 UN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도전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자칫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할 경우 다시 혼란과 무질서, 분쟁, 무력충돌 등을 야기하게 된다. 장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서야 구축한 UN 중심의 국제질서가 와해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 UN의 핵심 가치, UN 질서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을 입증하게 하였으며 권위주의 체제 위협을 실감케 했다. 가히 세계사적 역사적 사건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과 전후복구 성공 여부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글로벌 발전, 역사 발전, 문명 발전을 좌우하는 세계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유엔 질서,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에 우크라이나가 최전방 역할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고 평화회복되도록 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전후 복구 시급성이 더욱 대두되게 하였다.

세계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결정적 시기(Critical momentum)가 도래 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중심의 다원적 질서가 지배적이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권위주의 국가들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양측에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국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경제적 관점

1) 전후 재건을 위한 막대한 재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가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2023.5 월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 및 주요기관에서 1 조달러(우크라이나 GDP 의 5 배 규모)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전후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및 미국은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친 자유 민주주의 정권과 시장 경제에 기초한 재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구상하는 G7 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한국, 일본)들과 폴란드가 동참하는 마셜플랜의 채택도 전망된다.



2) 중국, 터키 등 자유 민주주의 진영 외의 강대국들의 독자적인 재건 추진 움직임도 포착된다. 중국은 이미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동유럽 내 거점 국가 확보를 위해 전후 복구 비용을 기부를 통해 자국 기업의 입찰을 지원하고자 하며, 터키 역시,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자재 공급 등을 통한 건설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3) 우크라이나 역시 전후 재건을 통해 기존 수준의 복구가 아닌 성장을 위한 기초를 만들하고자 한다. 전후복구를 Re-Building 이 아닌 New-Building 을 선호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숙련된 노동력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친서방 및 친 러시아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화가 미흡하였으나, 이번 전쟁 이후 친 서방 노선이 확고해 질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

전쟁 피해로 인해 전후 원점부터 재건해야 하는 주요 도시의 경우, 단순히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닌, 추후 국가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게 견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 아래에 재건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우리 외교의 대응전략 방향

1. 고려요소

1)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이념적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면에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우크라이나에 양 진영의 영향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실리적 동기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G10 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은 양 진영간의 균형 외교를 통해 중재자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대(리트머스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다.

3) 비록,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의 강력한 동맹 및 권위주의 정부와의 실리적 협력이라는 고난이도의 외교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서부의 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2. 유라시아 질서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의 심장부로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서방과 러·中으로 연결되는 권위주의 진영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등 7 개 국가와 접경

경제적 관점에서도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하자원, 유럽의 곡창지대를 보유, IT, 우주 기술 분야의 협력 가치가 큰 국가다.

* 한국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놓칠 수 없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이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인수('19), 삼성전자 키이우 R&D 센터 설립('09) 등 우리기업 진출

3.진출방향

가.상기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전쟁 난민에 대한 1)인도적 지원과 2)전후 복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대 진영이 대립하는 3)전후 질서 재편을 고려할 때,



4)정부의 對유라시아 전략과 5)對러시아 전략 그리고 통일을 고려한 6)남북러중 두만강 연해주 동북아시아 협력까지 이어지는 6 대 과제 중심으로의 입체적 접근이 요망된다.

나. 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동맹 강화와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핵심 역할자(Key player)로서 리더십 동시 추구

서방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 도상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한국의 역할이 가능하다.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범 자유민주주의 진영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출연한 재원과 자원을 조율할 다자 기구 설치 예상

4.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

가.한국의 독특한 위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동아시아 자유 민주주의의 주요국가이며, 러시아와 오랜 경제 협력을 통한 우호국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중진국 그룹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보유
-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 강의 선진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각국의 첨예한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핵심 역할자로서 위치 확보 가능

나.우리의 핵심역량활용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국익 기반의 실리적 접근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 초기는 파괴된 국가 기반시설의 복구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나, 중장기적으

로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시스템의 판올림(upgrade)이 목표가 될 것으로 본다.

* SDGs 등 국제적 합의가 있는 이니셔티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2025](#)년까지 우리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어 무상개발 협력 가능

※ 미국 및 유럽의 입장 못지않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지 역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 내 주요 인사와의 협력을 통한 사전 교감 확보가 필수

III 재건 사업의 참여의 목적과 목표

1. 참여목적

가. 단기목적

범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 동맹 강화 및 전후 질서 구축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추후 전후 질서 개편 및 복구사업의 발판을 마련한다. 정부의 유라시아 외교 및 국격 외교의 시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양국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 및 식량, 자원 안보 강화를 도모한다.

나. 중장기목적

중·장기적으로 SDGs 외교를 본격 추진하여,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다.

- 對유라시아 SGD's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농업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에너지, 환경, 바이오, 물류, 유통으로 확대되는 Multiple Silkroad 구축



2. 재건 사업 참여 방안(案)

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갖고 있는 외교적, 안보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담할 국가 기관* 필요하다.

* 정부부처와 달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반관·반민 성격의 컨트롤타워 필요

나.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NGO가 함께 참여하는 Team Korea를 구축하여 상호 역량을 보완하는 팀워크 발휘도 요구된다.

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시한 특정 도시 혹은 한 주(州)를 한 국가*가 주도하여 재건하는 방식 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의료, 교육 등 특정 분야별** 재건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영국은 키이우주, 덴마크는 미콜라이우주 추진 중

**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적 역량을 고려할 때, ICT 기반의 스마트 도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스마트팜) 중심의 도시 재건 사업이 경쟁력 확보 가능

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방향 수립 절차 (예상)

1) 미국은 자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마셜플랜을 모델로 한 국제적 협력 기구의 조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 OECD의 출범 자체도 마셜플랜을 관리하던 경제협력기구를 전신으로 하는 바, 전례에 따라, 국가간 원조, 국제기관 (예, 세계 은행 등)의 지원 및 민간 참여 등에서 출연되는 자금 전반 및 재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조정할 자율성을 가질 독립형 국제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4. 우리의 재건 사업 참여 방향

가.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자산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리베로 플레어로 역할

1) 전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는 이후에도 러시아의 안보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2) 세계에서 전후 복구에 성공하여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진국 네트워크 안에서 리더십 발휘 국가로 위치한다.

3) 이후, 강대국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선진국들의 자본 투입과 중진국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외교적 조율을 추진한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효과)

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기존 유엔 체제에서 도출된 국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리더십 발휘

1) 재건에 대해 참여 국가간 신속한 공감대 도출을 위해 SDGs 등 기존 유엔 주도의 국제 질서에서 논의된 의제를 활용하여 중동지역 국가 등 중진국 내 참여 국가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중진국 클럽이자 SDGs 추진위해 만든 P4G는 향후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2) SDGs 관련 국제적인 움직임(movement)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SDGs 관련 기존 국가간 협의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재건을 위한 국가간 소통 채널 구축 가능하다.

다. SDGs 내 대한민국이 주도 가능한 영역과 국익을 위해 참여 필요 영역을 사전 파악함으로써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재건 사업 참여하는 전략을 구사 할 필요가 있다. SDGs 내 17개 중점 추진 목표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ICT, 의료, 에너지, 건설 분야로 파악되며, 교육 분야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5. 뉴 우크라이나 비전과 가치

그동안 8차례 우크라이나 재건포럼, 전후복구 마스트 플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청사진 등 토대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협력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과 구체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 해 보았다.

1) 비전

우크라이나는 우주 항공 등 우수한 과학기술과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FTA 적용 등 EU 가입도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세계 굴지의 농업 대국이다. 또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물류 허브로서의 지리적 장점 등 특수성과 장점을 고려하여 REBUILDING 아니 라 NEW BUILDING 이 적합하다고 논의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이 가진 강점과 상징성을 고려하고 과거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경험으로 '드니프로 강의 기적'을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비전과 모토로 제의하였다.

2)가치

UN SDGs 가 추구하는 5p(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이 적합하다고 보았다.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하에 포용적, human-centric, 자유와 공동체간 동반 발전 등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은 그 나라를 넘어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3) 국가발전전략

UN SDGs, ESG, 탄소중립, 디지털혁신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와 연계한다. 특히 6.25 남침 전쟁을 치른 한국의 경험과 또 여타 선진국 개발 성공 사례에 비쳐 가장 핵심 성공 요소는 인적 자원 양성에 있다는데 본다.

그리고 한국, 폴란드를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 간 협업 강화가 중요하다. 큰 전략과 함께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변화 관리 전략, 실행전략, 액션 플랜이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성공요인이다.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단기성공 사례 제시 Quick win, change leader 양성, 법. 제도. 문화 개선, 평가시스템 도입 등 변화관리 전략과 실행 전략을 특별히 수립해 추진해야 할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6.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목표

가. 범 자유 민주주의 진영 내 동맹 강화 및 전후 질서 구축 적극 참여 (단기 목표)

- 1)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튼튼한 연대를 구축한다.
- 2) 자유 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승리를 지원하고 추후 전후 질서 구축 및 복구 사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 3) 정부의 對유라시아 외교 정책 가치, 국격 외교를 위한 시험 과제(Pilot Project)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 4) 우리 기업의 전후 복구 사업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식량 안보 강화 및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

나. 對유라시아 SDGs 외교 본격 추진 (중·장기 목표)

중국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이뤄지는 ‘일대일로’를 꿈꾸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선 농업이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은 여러 면에서 선도 분야로서 장점이 있다. 과학 기술이 동원되고, 일자리 창출,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파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더 이상 6차 산업이 아니라 10차 산업이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빅 데이터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경영혁신기법도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문제다. 단순 영농을 넘어 가공, 농산업,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유통, 물류를 엮는 수직적 통합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연계된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와 수평적 통합을 하면 그림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한 지역 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글로컬(Glocal)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 사슬, 글로컬,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이 뒷받침된 농업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매력은 어느 국가에게도 호소력을 가진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와도 매우 부합된다. 국제 사회의 공감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식량 안보는 모든 국가의 큰 관심사이다.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번영의 문제이자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SDGs 실�크로드’를 위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1단계 농업 메가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1단계로 농업 메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백만(1,000,000) 헥타르 규모의 디지털 기반, 가치 사슬 기반의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축 할 수 있다. (한국 경작면적은 약 150만 헥타르) 가치 사슬은 영농, 가공, 농산업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유통, 물류 등 농업과 연관된 분야 간 수직적 통합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2단계인 농업 실�크로드 추진이다. 2단계는 농업 메가 프로젝트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가 농업 대국으로서 메가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 아시아에서도 메가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다. 몽고, 극동 러시아에서도 메가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2단계가 구축되면 이것이 바로 농업 실�크로드가 된다.



셋째로 3단계인 멀티플(Multiple) 실크로드 구상이다. 3단계는 농업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농업과 연관된 물류,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등 유관산업으로 확장하는 다수의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이다. 농업이라는 큰 고속도로 위에 유관 산업이라는 다양한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메가프로젝트 가치 사슬이 수직적 통합이라면 3단계 멀티플 프로젝트는 농업과 연관된 분야 간의 수평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있어 디지털 기반이 되어야 하고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UN SDGs가 강조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즉 '평화, 번영, 지구, 인간, 동반자관계(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를 기본 가치로 삼으면 될 것이다..

7. 참여 전략

첫째 통합 전략이다. 먼저 수평적 통합이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간 수평적 통합을 말한다. 그래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분야와 분야 간 융복합이 가능해진다. 공간적 통합이 있어야 한다. 한국을 넘어 한반도,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등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개 시제를 같이 볼 수 있는 수직적 통합이 있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미래를 좌우한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개 시제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제 간 수직적 통합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라시아 지역 내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거점 전략이다. 농업의 허브, 디지털 허브, 수출과 물류의 허브, 생산의 허브, 테크노 파크 허브 등 유라시아 지역에 맞는 다양한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차원에서도 최적의 입지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성공모델을 확산해야 한다. 농업의 성공모델, 의료의 성공모델, 에너지의

성공모델, 환경의 성공모델 등 다양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공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 재처리시설을 활용한 성공 모델을 잘 만든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지역에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다.

넷째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은 국가 리스크(Country Risk)가 높은 국가군에 해당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 장치 구축 차원에서도 다양한 파트너 간 협업과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간 통합, 명확한 실행 전략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협력 플랫폼에는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파트너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분야와 분야 간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진출을 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다.

한-우 정부 차원에서는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의 틀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프로젝트가 반영된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우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두개의 마스터플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포럼”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포럼은 한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한우 협력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민간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면 더욱 탄력을 줄 것이다. “한우 협력 씽크탱크”를 발족한다. 씽크탱크는 정부와 민간에게 협력전략과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우 협력플랫폼구축

마스터플랜 (액션플랜, 로드맵)	한 . 우포럼 (년 1회 개최, 각계 대표 망라)
마스터플랜 이행 위한 법, 제도, 금융 지원 계획	한 . 우협력위원회 (친선단체/한 . 우 양국 설립)
한 . 우 실행위원회 구성 마스터플랜/지원계획 이행 점검	한 . 우 협력센터 (씽크탱크/한 . 우 양국 설립)

여섯째 인문학적 이해 필수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가 조성되어야 한다.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 신뢰를 토대로 한 비즈니스는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비즈니스와 질적으로 다르고 오래 갈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면 더 큰 이해가

나타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파트너십은 깨지기 쉬운 구조다.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은 비즈니스세계에서도 필수라 생각된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정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수반되어야 한다.

IV. 재건사업구체 참여방안

1. 민간 협력 방향

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충돌에서 비롯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과 한반도 안보를 연계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MZ 세대와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30-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캠페인 설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K-Pop 평화콘서트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민간 단위의 참여 확대

현재, 국내외 의료 전문 봉사기관 및 구호 전문 단체 등 단체와 개인이 민간 단위의 체계적인 협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일본, 미국 등 해외 네트워크 포함) 참여 단체간 협력과 조율을 확대하여 민간 협력의 창구 기관으로 활동하고 지원사업모델도 지속가능한 모델로 계속 발전시켜가야 한다..

다. 고려인 등 우크라이나 내 한국 우호 그룹과의 협력 확대



1) 한국-우크라이나 의원 친선 위원회장 및 고려인 출신의 김니콜라이 미콜라예프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내 친한 유력 인사와의 협력 확대한다.

2) 우크라이나 친한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협력을 성공시킴으로써, 양국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제고하고 이후 보다 긴밀한 차원에서의 국가간 협력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3)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정부차원이 아닌 지자체 수준에서의 협력을 가시적으로 끌어냄으로써, 국가간 협력 시, 성공 사례를 확보,확산해 갈 수 있다. (예, 현재 자매 결연 중인 대전-히르키우를 비롯하여, 부산-오데사, 대구-르비우, 포항-미콜라예프 등 서로의 역량을 이전 보완할 수 있는 매칭 가능)

2. 정부 정책 및 역할

1) 재건사업추진 전단계에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민간이 활발히 재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긴급구호자금 확대,ODA 확대,G2G 협력확대,위험지역에 대한 금융보험제도도입 등 참여여건을 적극 구축해야 한다.

2) 본격적인 재건 추진 시, 미국,EU 등 각 참여국 역시 자국에 우호적인 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재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참여가 필수다.

3)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 단체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및 사업을 제언함으로써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3.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모델

가. 도시 재건 사업 참여 모델

양국 주요 도시간 핵심 역량의 이전 및 보완이 가능한 자매 도시를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혁신 도시를 구축한다.

- * SDGs,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기반 최첨단 스마트시티 진출, 한국과 자매도시 결연
- *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미콜라예프, 르비우 등은 구체적 협력에 대한 논의 가능
- * 의료, 인프라, 교통, 발전소, 상하수도, 쓰레기 재처리, 주거시설 구축 등
- *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스마트팜, 바이오 메디칼 헬스케어 클러스트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필수
- * 재건 전문인력 양성위한 국내 및 우크라이나 현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나. 구체 단.중.장기 과제

그동안 8 차례포럼개최,전후복구 마스트플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비전 등 토대로한,우크라이나간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하였다.

(중장기전략과제)

1)한국측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에서 다양한 계기시 전담지역을 맡아 달라는 제의와 이미 유럽 다수 국가들이 전담지역을 선정한 사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 참여 의지를 감안했다. 르비우주, 미콜라이프주 2 개 주가 전담지역으로 최적



화라 했다. 수도 키이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다만 이는 민간차원의 제안이며 향후 한국 정부의 내부 검토와 한·우크라이나 정부간, 국제사회 간 협의에 따라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다.

2)드니프로 강의 기적과 걸맞고 또 수자원 관리 중요성, 드니프르 강의 활용 등 차원에서 한국에서 구축하여 세계적인 명품 환경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는 4 대강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드니프르 강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3)우크라이나 서부와 폴란드를 연계한 광역, 초국경 프로젝트로 국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스마트시티 클러스터(인구 3-5 백만)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4)미국정부의 '미네소타프로젝트' 를 통한 인적자원 육성이 [1953](#)년 한국 전후복구에 크게 기여한 사례에 기초하여 제 2 미네소타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데 지지를 표명하였다 .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글로벌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문인력 양성, 알앤디, 스타트업 지원 ,혁신클러스터 지원 및 테크노파크 지원 등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5)전쟁으로 파괴된 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의료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6)식량 안보 중요성과 우크라이나 농업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농산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유통, 물류를 연계하는 밸류체인에 기반한 1백만 헥타르 규모의 농업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

7)수도 키이우가 가지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고, 전쟁 이전 진행해 온 키이우와 서울시간 협력, 한국 서울의 여의도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 경험 등을 고려해서 수도 키이우에 친환경 중심의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등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

8)우주, 항공 분야의 중요성과 우크라이나의 강점, 한국의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하여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 분야의 협력 중요성과 방안이 강조되었다 .

9)전쟁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waste to energy, de-mining, 토양 오염 제거, 상하수 관리 등 CDM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하자고 하였다 .

10)전쟁으로 황폐화된 발전소, 도로, 교통 등 SOC 재건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였다 .

11)전쟁으로 인한 전쟁 미망인, 여성 잠재력 활용 등의 차원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스타트업 지원 등 여성 임파워먼트 프로젝트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자고 하였다 .

12)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를 연계하여 폴란드, 우크라이나에 Sustainable Community Testbed 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기반하에



일자리 창출, 안정된 소득 보장, 학교, 병원 서비스 등 단기간, 조기에 적용 추진할 수 있는 복합 프로젝트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13)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지원, 다양한 긴급 구호 발생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Human Aid Hub 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14)한국의 국가발전 경험을 포함한 폴란드, 유럽 선진국 베스트 프랙티스를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 위한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 적극 도입 추진하기로 제의하였다.

(단기 프로젝트)

1)교육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다. 글로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콘코르디아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

2)제 2 '미네소타프로젝트' 추진 차원에서 한국, 폴란드 등 참여 대학들이 인적 자원 양성, 인적교류, 스타트업 등 단기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한국 전자재 대표 회사도 우크라이나 현지화에 관심을 표명하였다.우크라이나측에서도 조속 현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4)한국의 물류 회사도 우크라이나 물류 프로젝트에 적극 진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5)스마트팜을 조기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성과 pilot projects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하였다.

6)대한민국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City Network 사업에 우크라이나 우만시가 신청하였으며 동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협력을 다 하기로 하였다 .

7)한국의 전세계적 겨울 양파종자 회사도 단기적으로는 겨울 양파 파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양파종자 채집, 가공 등 양파 클러스터 구축으로 확산하자고 하였다.또 한국이 개발한 '우크라이나'에 적합한 우수 옥수수 종자를 우크라이나에서 시험 재배하는 한편, 향후 대규모 종자 채집을 해서 옥수수 증가로 식량안보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

8)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향후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과 feasibility study 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9)인도적 지원과 전후복구와 연계된 차원에서 sustainable community Testbed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하였다.스마트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창출 또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구축한다.

V. 재건 사업 참여의 기대효과

1.우크라이나차원

전쟁 피해국가에서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룩한 나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하여 국제 질서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G8 에 진입 할 수 있다.

지정학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자유 민주주의 확립은 러시아,중국,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체제에 영향을 주는 한편, 유라시아 서쪽의 안정을 통한 유라시아 동쪽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다.



경제차원에서는 천연자원과 식량 강국, 우주항공강국인 우크라이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에 집중된 중요 자원의 공급처를 다변화 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산단, 테크노파크 진출을 통해 유럽대상 생산, 가공, 유통, 물류 전 진기지화 등 제2의 베트남화를 도모 할 수 있다.

Team Korea 를 통해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ICT, 원자력 등 대한민국 핵심역량의 글로벌 브랜딩 및 이를 통한 양국 간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글로벌로 확산할 수 있다.

2. 유라시아차원

첫째,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라시아의 성공적 진출은 신시장 확보, 신기술 확보, 새로운 일자리 확보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준다.

둘째, 남북한 평화 통일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유라시아 통합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면 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통일된 한반도가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셋째 유라시아 차원에서는 통합을 가속화하고, 국가 간 대립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번영을 위한 '선순환'적인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유라시아 국가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고 교통, 물류가 발전된다면 갈등과 경쟁보다 화합과 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3. 글로벌 차원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UN의 SDGs 과제와 부합하는 새로

운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희망을 제공한다. UN SDGs를 유라시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는 앵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4. 미래 및 역사차원

미래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 혁명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한반도가 더이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키는 축복(Blessing)으로 전환시키는 의미가 있다. 평화를 촉진하는 ‘평화 메이커(Peacemaker)’ 역할도 한다.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창출자(Value Maker)’ 역할도 한다. 바로 인류 문명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는 의미다. 언젠가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을 ‘히스토리 메이커’로 부를 것이다.

VI. 결론

2012년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당시 김인규 KBS 사장이 한 강의를 잊을 수 없다. K-Pop이 뉴욕과 동경, 파리 등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비단 K-Pop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국운상승기라 할 수 있다. 평화 통일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일일 생활권, 단일경제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모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어 보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담대한 꿈에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역사도 결국 무모해 보이지만, 대범한 발상과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더욱 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세기적 사명에 적극 도전해 볼 때이다. 한국이 주도한 UN SDGs 실크로드는 화해와 협력, 번영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다. 강대국이 주도하는 실크로드는 분쟁과 갈등, 경쟁의 이기적인 제국의 실크로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력이 되는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글로벌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좋은 사례이다. 새마을 운동도 좋은 사례이다. 둘 다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로, 섬김, 희생, 근면, 자조, 협동이란 가치가 기반이 되고 있다. 2017년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함께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농군 학교 설립자인 김범일 총재의 철학은 매우 분명했다. “사람의 변화 없이는 가정, 공동체, 국가와 민족의 변화가 없다.” 또한 “가치의 변화 없이는 사람의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도덕과 가치, 정체성의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시대 상황일수록 보다 더 높은 보편적인 가치로 무장된 무브먼트(Movement)를 우크라이나와 유라시아로 확산해야 할 때이다. 단순한 무브먼트 만으로는 안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과학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잘 이해하고 과학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무브먼트(Smart Movement)가 되어야 한다.

주우크라이나 대사로 근무하던 시절, 유럽국가의 대사들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다. 이 분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선진국은 선진국 병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도덕과 가치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고독과 외로움도 그 중에 하나이다.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 더욱 이러한



인문학적인 위기가 심하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대사들은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어느 정도 극복했으면서도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고민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평가를 한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국가 발전을 이루는 기적을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한국이 또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 ‘선진국 병’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고 느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동참하여 유라시아 심장부 우크라이나에 “드니프르 강의 기적,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비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기적을 그려본다. 끝.